

지명 속에 나타난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

이영희**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ndscape of Gaesung as Reflected in the Geographical Names

Younghee Lee**

요약 : 본고는 남북경제협력 사업인 개성공단 개발사업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장소의 의미가 커진 북한 개성시의 자연경관특성을 지명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문헌분석, 탈북자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그리고 두 차례의 개성 현지답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주요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명에 나타난 개성지역 산지의 특성은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고 산의 형태가 둥근 모양과 삿갓 모양이 많으며,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곳은 잦은 안개발생과 하천침식에 의한 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하천은 모래의 양이 많고 유황이 불안정하며 일부 개풍군 및 판문군 일대의 하천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지명에 투영된 동·식물은 그 서식환경이 개성지역의 자연환경과 유사한 것이 특징이다. 넷째, 토양, 벼랑, 벌, 바위와 관련된 기타지명에서 토양 특히 붉은 토양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의 북부 산지지역에 분포하고, 벼랑과 관련된 지명은 벼랑 발달의 원인이 되는 하천 연안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평야를 의미하는 벌 관련 지명은 사천강의 지류인 서암천 연안에 분포하고, 바위 관련 지명은 산과 하천 그리고 마을이 혼재되어 있는 곳에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북한 개성지역은 남북경제협력 사업이자 평화구축 프로젝트인 개성공단 개발사업과 개성관광사업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지역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개성지역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자료접근이 어렵고 기초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개성지명에 관한 본 연구는 지역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성지역을 관리하고 운영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주요어 : 지명, 자연경관, 산지지명, 하천지명, 동·식물지명

Abstract : Gaesung city of North Korea is meaningful because of th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as a peace-building project and economical cooperation work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is article presents the characteristics of natural landscape of Gaesung through geographical names. This research was studied by literature analysis of North Korea, depth interview of North Korean labour and refugees, and second times fieldwork.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ountain landscape of Gaesung revealed on geographical names characterized mountainousness and round shape. Especially, the places where are enclosed by mountain and streams are foggy and rocky. Next the landscape of stream characterizes sandy, unstable, and tidal river. Thirdly the fauna and flora which are reflected on geographical names are hawk, snake, tiger, horned owl, snapping turtle, chestnut tree, pine tree, pear tree, zelkova tree, and willow etcetera.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of habitation of these are similar to the natural environment of Gaesung. Besides, the geographical names related to soil distributed in northern mountain area of Gaesung. The place names implicated cliff located on the riverside. In addition to this, the

* 본 논문은 2004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 2004-074-AL0012).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연구 조교수 (Research Associate Professor,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younghee@korea.ac.kr

geographical name of 'Bul' implicated plain distributed in the riverside of 'Seoam' which is a branch stream of 'Sacheon'. And the place names related rock located in place enclosed by mountain, river, and village. In conclusion, Gaesung is more important to us as the Gaesung industrial complex and tourism development. But the fundamental research on Gaesung is a few because Gaesung belongs to North Korea. Therefore, this research will be useful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Gaesung in the future.

Key Words : geographical names, natural landscape, place names of mountain, place names of stream, place names of fauna and flora

1. 서론

1) 연구목적

최근 북한의 개성지역은 한국 전쟁 이후 배일에 가려진 채 공산주의 체제 유지를 위해 운영되어 오다가 개성공업지구를 매개로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가 결합하여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품생산지로 그 모습을 드러내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나아가 개성공업지구를 근간으로 개성관광사업과 같은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남북교역의 확대가 증진되고 결과적으로 문화적 이질감을 최소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는 장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개성지역에 대한 기초연구는 개성이 북한지역이기 때문에 매우 미진한 실정이다. 개성지역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지명 연구도 단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행정지명의 변화(강길부, 1997)와 북한의 바뀐 이름 및 전설 관련 지명연구(김기빈, 1990), 그리고 개풍군의 각 면별 소지명의 유래(개풍군지 편찬위원회, 1968)에 대한 것이 전부일 뿐이다. 향후 개성지역의 변화를 고려할 때 지역정보를 담고 있는 개성지명연구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민족의 동질성 회복 측면에서 장소의 의미가 보다 커진 개성지역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개성의 지명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특히 지명이 자신의 거주지에 대해서 갖게 되는 최초의 인상 즉, 자연·인문상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여겼던 인상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는 점(서명인, 1998: 2)에 착

안하여 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자연경관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지명에 내재된 자연경관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본 연구는 한 개의 시(개성시)와 세 개의 군(개풍군, 판문군, 장풍군)으로 구성된 북한 개성직할시를 연구지역으로 선정하고, 북한 고장이름사전(사회과학원, 2002)에 수록된 개성직할시의 자연지명 3,394개를 수집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집한 자연지명은 크게 산지, 하천, 동·식물, 기타 4개의 유형으로 대분류한 후에 다시 세부 유형별로 중분류하였다. 즉, 산·뫼·메·머리·악·고지가 들어간 지명은 산지명, 골·곡이 접미어로 들어가거나 골짜기를 뜻하는 지명은 골짜기명, 봉과 봉우리를 뜻하는 매기·대·덜미·두가 붙은 지명은 봉우리명, 고개·재·영(嶺)·현(峴)·치(峙)·마지·바랑이·밭·너머가 들어간 것은 고개명, 등·마루가 들어간 것은 산등성이 지명, 모퉁이·모테이·모루·부리가 들어간 지명은 산모퉁이 지명, 강·천(川)·내·개·개울·탄(灘)·계(溪)·포·돌이는 하천지명, 동물 및 식물과 관련된 것은 동·식물 지명, 그리고 천정·벌·토양·벼랑·바위는 기타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지명들은 각각의 유형별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 지명 속에 나타난 개성 자연경관의 특성은 문헌분석, 심층면담, 그리고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우선 문헌은 북한에서 발행된 '고장이름사전(사회과학원, 2002)'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고, 개성과 관련 국내문헌들을 참고하였다. 다음 심층면담은 탈북

자와 개성시범관광 시 접촉이 가능했던 북한 안내원과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현재 개성지역의 지명은 우리나라와 다른 북한의 특수한 사회체제가 반영되어 있고 또 지명해설에 있어서도 북한의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사상적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탈북자와 북한 안내원의 증언을 토대로 가능한 북한 지명의 본래의 의미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개성 현장답사는 2005년 5월 26일과 9월 7일 두 차례 실시하였다. 1차 답사 때에는 북한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개성시범공장과 100만평 규모의 개성공단 1단계 개발지역을 답사하였으며, 2차 답사 시에는 개성시와 장풍군 경제지역에 위치한 영통골과 개성 시내 일대를 답사하였다.

3) 연구지역개관

본 연구의 대상지역인 북한의 개성시는 개성공업지

구법(2002)에 의해 “국제적인 공업, 무역, 상업, 금융, 관광지역”으로 지역의 성격이 규정됨 따라 남·북한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개성시는 금강산과 나선특급시처럼 평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 사상오염을 차단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여 북한의 경제회생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북한은 2011년 개성공단 개발이 완료되었을 경우 개성지역 관광객 수가 약 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 점은 개성지역에 대한 북한의 기대와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개성지역이 남한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토지²⁾와 값싼 노동력³⁾의 확보가 가능하고 또 개성공업지구법 제 30조⁴⁾에 의거해서 관광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성지역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큰 편이다. 이미 국내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주)은 총 3단계(총 2,000만평)의 개발계획을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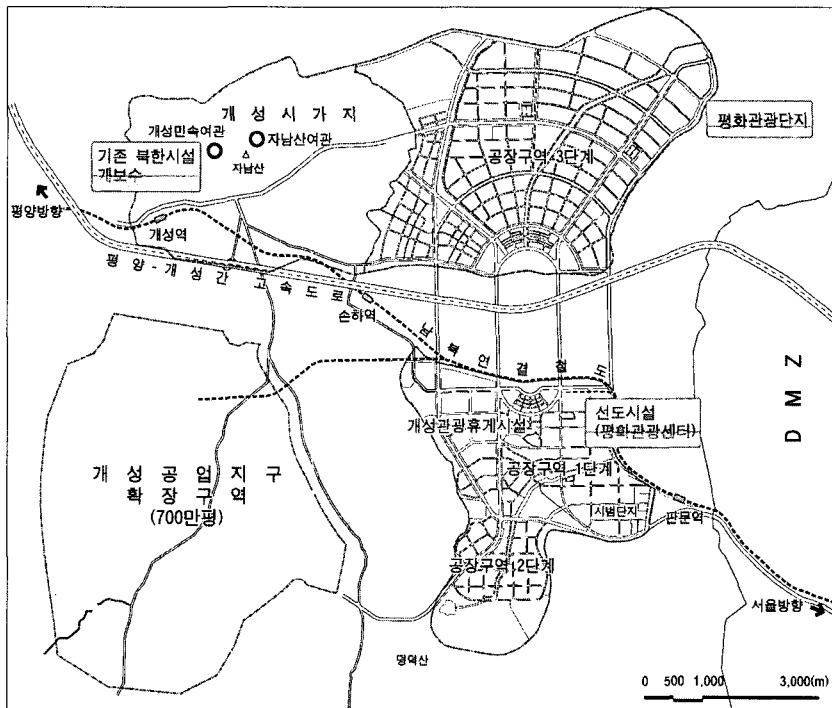


그림 1. 개성관광개발 계획도

출처 : 이영희·유신 코퍼레이션(주) (2005, 130)

우고 그중 제 1단계 개성공단개발 100만평 구역(그림 1)을 개성공단 착공식이 있었던 2003년부터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하여 개발을 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개성공단 시범단지 내에는 의류(신원), 신발, 식기(리빙아트) 제조 공장 등 4개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데 반드시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여야만 한다는 개성공업지구법 제 37조⁵⁾에 따라 북한 개성지역에 거주하는 약 2,700여명의 북한 사람들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개성공단 내에는 북한 노동자를 위한 병원, 개성공단 통용화폐인 달러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 북한 노동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식당, 그리고 국내 노동자를 위한 편의점 등도 개성공단 가동과 더불어 활발히 운영이 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성공단 개발을 발판으로 한국관광공사는 개성시내의 문화유적관광, 개성공단의 산업관광, 비무장지대의 생태관광, 그리고 북한체험관광을 근간으로 한 개성관광종합계획(남성욱·이영희, 2005)을 수립하였고, 현대아산(주)은 본격적인 개성관광 준비의 일환으로 2005년 8월 26일부터 9월 7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개성 영동사 - 박연폭포 - 왕건릉 - 공민왕릉 - 선죽교 - 표충비 - 송양서원 - 고려성균관 - 개성공단 코스의 개성시범관광을 실시한 바 있다.

이처럼 장소의 의미가 보다 커진 북한의 개성지역은 우리나라와 다른 지역 전개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북한은 한국 전쟁이후 개성이 남한과 가깝다는 이유로 정책적으로 개성지역 원주민을 타 지역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개성에는 타 지역에서 공산당 성향이 강한 사람들을 선별하여 이주시켰다.⁶⁾ 그리고 행정구역 체계는 1961년 3월부터 개성시(27동 2리), 개풍군(1읍 18리), 장풍군(1읍 23리), 판문군(1읍 17리)을 포함한 개성직할시 체제를 유지해오다가 2003년 6월 개성직할시를 폐지하고 직할시 보다 등급이 낮은 개성특급시로 행정구역을 개편하였다. 특히 2003년 행정구역 개편 당시 북한은 1읍 17리로 구성된 판문군을 각각 개성공업지구,⁷⁾ 개성시, 개풍군에 나누어 편입시키고 판문군 자체는 아예 폐지시켰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 432).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연구자료로 이용된 고장이름사전(사회과학원, 2002)이 행정구역개편 전에 발행되어 개성시는 물

론, 개풍군, 장풍군, 판문군 지역까지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4개 지역을 모두 포괄하는 직할시 체제의 개성지역을 지명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2. 개성 자연지명의 유형별 특성

개성지역의 자연지명은 북한 고장이름사전(사회과학원, 2002)에 등록된 지명의 유형별 빈도분석결과에 따르면 산지 관련 지명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그림 2). 개성의 자연지명은 크게 산지, 하천, 동·식물, 기후, 지질, 기타(천정, 바위, 벼랑, 벌, 토양)지명으로 유형 구분하였을 때, 지질 및 기후 관련 지명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 산지 관련지명이 전체 자연지명의 87 퍼센트, 동·식물 관련 지명이 7 퍼센트, 하천 관련 지명이 5 퍼센트, 그리고 기타로 분류한 지명이 5 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이 특색이다. 이러한 개성 자연지명의 특성을 산지, 하천, 동·식물, 기타 지명으로 유형화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산지지명의 특성

개성 산지지형과 관련된 자연지명 구성요소로는 산, 골, 봉우리, 고개, 산모퉁이, 산등성이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산지지형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이 그대로 지명에 반영되어 사용되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산은 고대로부터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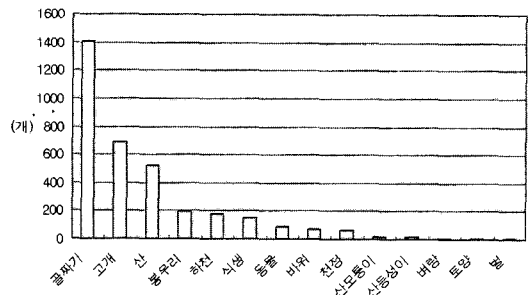


그림 2. 개성지역 자연지명의 빈도수

자료 : 사회과학원(2002)

표 1. 자연지명의 지역별, 유형별 출현 빈도

영역	유형		개성직할시				계	비율(%)*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자연 지명	산지	산	53(10.2)**	233(44.9)	120(23.2)	112(21.6)	517(100.0)	15.2
		봉우리	32(20.1)	44(27.6)	39(24.5)	44(27.6)	159(100.0)	4.7
		골짜기	106(7.6)	288(16.4)	425(30.6)	629(45.3)	1,388(100.0)	40.9
		고개	117(16.9)	149(21.5)	220(31.7)	206(29.7)	692(100.0)	20.4
		산모퉁이	0(0.0)	0(0.0)	14(58.3)	10(41.6)	24(100.0)	0.7
		산등성이	1(5.5)	1(5.5)	3(16.6)	13(72.2)	18(100.0)	0.5
	하천		45(25.7)	20(11.4)	54(30.8)	56(32.0)	175(100.0)	5.1
	동·식물	동물	1(1.1)	15(16.6)	30(33.3)	44(48.8)	90(100.0)	2.7
		식물	18(11.5)	15(9.6)	70(44.8)	53(33.9)	156(100.0)	4.6
	기타	천정	16(24.6)	16(24.6)	29(44.6)	4(6.1)	65(100.0)	1.9
		별	0(0.0)	0(0.0)	2(100.0)	0(0.0)	2(100.0)	0.1
		토양	2(13.3)	4(26.6)	4(26.6)	5(33.3)	15(100.0)	0.4
		벼랑	0(0.0)	0(0.0)	3(23.0)	10(76.9)	13(100.0)	0.4
		바위	23(29.1)	4(5.0)	14(17.7)	38(48.1)	79(100.0)	2.3
	계		412	728	1,024	1,223	3,394(100.0)	100.0
지역구성 비율(%)		12.2	21.5	30.3	35.8	100.0		

* 전체 자연지명 중에서 차지하는 구성비율.

** 괄호 안의 수치는 각각의 지명유형별 구성비율을 의미함.

자료 : 사회과학원(2002)

민족이 의식주 해결을 비롯한 경제생활을 영위해 온 곳일 뿐만 아니라 상징적으로 민족 공동체의 수호신적 역할을 하여왔기 때문에 산지지명을 낳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점은 북한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 자를 그대로 지명 끝에 붙여서 산이름을 나타내거나 산의 고유인 '뫼'와 그것의 변형인 '메' 그리고 산을 의미하는 '머리', '악', '고지'의 단어를 그대로 지명 말미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개성 지역에서 산을 의미하는 지명은 총 517개로서 전체 자연지명의 15.2 퍼센트를 차지한다. 개성지역에서 산을 뜻하는 지명은 산의 구성비율이 높은 개풍군이 44.9 퍼센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판문군 23.2 퍼센트, 장풍군 21.6 퍼센트, 개성시 10.2 퍼센트 순서로 나타난다.

둘째, 골짜기는 북한 개성지역에서 '골'을 지명 끝에 붙여서 사용하거나 골짜기의 생김새, 산물(産物), 위치, 전설 및 사연과 관련하여 그 이름을 정한 것이

특징이다(표 2). 개성지역 자연지명 중에서 골짜기명은 1,388개로 전체 자연지명의 40.9 퍼센트를 차지하며 이중 '골'자 지명의 사용빈도는 1,346개이다. 이와 같은 골짜기 관련 지명은 개성직할시 내에서 산지의 비율이 높은 장풍군이 629개(45.3%)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판문군 425개(30.6%), 개풍군 228개(16.4%), 개성시 106개(7.6%) 순으로 나타난다.

셋째, 경사가 완만하여 일찍부터 교통로로 이용되어 온 고개는 고개를 의미하는 재, 령, 현, 치, 마지, 바랑이, 너머와 함께 북한 개성지역에서 빈도 높게 지명에 사용되고 있다. 개성지역에서 고개명은 전체 자연지명 중에서 20.4 퍼센트(692개)를 차지한다. 이러한 고개명을 접미어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한글화된 접미어 '고개'와 '재'가 붙은 고개명은 각각 611개(88%)와 45개(6.5%), 큰 고개를 뜻하는 령은 5개(0.7%), 령보다 작은 고개를 뜻하는 현은 15개(2.1%), 일본어 '상(峠)'과 비슷하여 일제시대 급격히 늘어났던 치(峙)는 3개

표 2. 골짜기명의 유래

분류	골짜기명(유래)
생김새	가마울(가마), 너개울(넓은 골), 소학동(학), 수자매기(물이 굽은 곳), 용수매기(물이 솟구치는 곳), 검은 다래기(다래끼), 큰 굴지(큰 골), 홍재이(붉은 언덕)
산물	돌방구리(돌), 가재우리(가재), 대호재(호랑이), 쇠판(쇠돌), 참나무쟁이(참나무), '류곡동'(버드나무), 돌두덩이(돌)
위치	하늘거리(하늘처럼 높은 곳), 막지기(마지막 끝), 마가울(마지막), 청룡안(주산 좌측), 도라꾸지(마을을 끼고 돌)
전설 및 사연	와둔지(기와를 굽던 곳), 물레울(물레), 독쟁이(독), 대울(돌우물), 부처울(돌부처), 해치(조수물이 농사를 해침), 천만재(서생), 채인말('채인말' 이라는 마을이 있었던 곳), 덕우예(전염병 환자를 격리시켰던 곳), 두루옹덩이(큰 물웅덩이), 주추백이(주춧돌), 한저울(가뭇피해), 야금어재(씻물), 삼설령(눈이 녹지 않는 봉우리), 구지티(옛날 집터), 왜둔지(일본군 주둔지), 옷물이(약물)

자료 : 사회과학원(2002)

(0.4%), 고개에서 음이 변한 '오개'는 2개(0.3%)이다. 이밖에 부처 앞에 떠 놓은 밥을 의미하는 '마지', 돌이 많음을 뜻하는 '석밭'과 '바랑이', 높은 곳의 저쪽을 의미하는 '너머', 큰 현돌이 박혀있다는 의미의 '장석백', 그리고 마지막의 맨 끝을 뜻하는 '대미'도 각각 1개씩 고개명의 접미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접미어 중에서 특히 한글화된 접미어 '고개'는 사용빈도가 전체 고개명의 88퍼센트를 차지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고개' 접미어 사용비율 37 퍼센트(김양자, 1986, 6)와 비교할 때 51퍼센트나 많은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이것은 북한의 주체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산의 가장 높은 부분을 의미하는 봉우리는 한자식 표기를 하지 않고 한자음 '봉'을 접미어로 붙이거나 봉우리를 뜻하는 매기(도루매기), 대(남경대, 북고대, 중대), 덜미(안개덜미), 두(잠두)의 단어를 지명 끝에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봉우리의 지명 활용빈도수는 159개로서 자연지명 중에서 4.7 퍼센트를 차지한다. 그리고 봉우리 지명의 분포는 판문군과 장풍군에 집중분포되었던 산, 골짜기, 고개 지명과는 다르게 개성시,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 4개 지역에 모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표 1).

이밖에 산이 꺾여 돌아간 곳을 뜻하는 산모퉁이(24개)와 산의 등줄기를 의미하는 산등성이(18개)도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지명에 활용되어 쓰이고 있다. 먼저 산모퉁이 지명의 경우는 모퉁이, 모테이(모퉁이의 또

다른 표현), 모루(산모퉁이의 휘여 돌아간 곳), 부리가 접미어로 쓰이며, 다음 산등성이 지명은 등(언덕을 의미함), 마루(산꼭대기를 의미함)가 접미어로 쓰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산모퉁이 및 산등성이 관련 지명은 개성시와 개풍군에는 극히 일부만 분포하는데 비해서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은 판문군과 장풍군에는 표 1에서 보여지듯이 집중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2) 하천 지명의 특성

북한 개성지역에서 하천 관련 지명은 빈도수 총 171개로 산지 관련 지명 다음으로 많다. 이러한 개성의 하천 관련 지명은 한자식 표기를 전혀 하지 않고 하천이나 여울, 물줄기, 그리고 감조하천을 의미하는 단어를 지명 말미에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서, 하천을 의미하는 '천'과 '내',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작은 물줄기를 의미하는 '개울', 여울을 의미하는 '탈', 강에 조수가 드나드는 곳을 의미하는 '개', 물이 도는 것을 의미하는 '돌이', 강과 바다로 둘러싸인 곳을 의미하는 '포', 그리고 넓고 길게 흐르는 내를 의미하는 '강'이 하천명의 접미어로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하천가의 모래찢질이 인삼 다음으로 좋다는 의미의 삼대(1)와 세 개의 물줄기가 합류되는 것을 의미하는 새거리(1) 및 삼더푼(2)도 극히 일부이지만 하천을 지칭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하천지명 접미어의 빈도수를 살펴보면, 개울(71), 천(50), 개(14),

표 3. 개성지역 지명에 투영된 동물과 동물지명의 공간분포

유형	동물	주요 서식지*	동물지명 분포지역	지명갯수(%)
포유류	고양이	사육지	판문군(선적리)	1(1.1)
	곰	삼림	판문군(판문읍), 장풍군(장좌리, 가곡리)	4(4.3)
	노루	산림지대, 숲 가장자리	개풍군(삼성리), 판문군(상도리)	3(3.2)
	돼지	사육지	개풍군(광답리, 연강리)	2(2.2)
	말	온대의 삼림, 초원	개풍군(광답리)	1(1.1)
	사슴	혼효림, 낙엽수림, 호숫가	장풍군(덕적리)	1(1.1)
	소	사육지	판문군(선적리), 장풍군(장풍읍, 덕적리)	2(2.2)
	여우	산림지대, 숲, 초원, 사막	장풍군(국화리, 솔현리, 장학리)	3(3.2)
	족제비	낮은 산, 물가	개풍군(해평리)	1(1.1)
	토끼	야산, 사육지	판문군(‘령정리’), 장풍군(고읍리)	3(3.2)
	호랑이	삼림, 관목림, 덩굴	개풍군(연강리, 해평리, 삼성리), 판문군(‘령정리’), 장풍군(장풍읍, 덕적리, 고읍리, 세골리)	8(8.7)
소계				29(31.5)
조류	까치	촌락주변, 시가지 공원	판문군(화곡리, ‘림한리’), 장풍군(월고리)	3(3.2)
	피꼬리	산지 침엽수림, 활엽수림	판문군(신흥리)	2(2.2)
	평	구릉지, 산간초지, 숲	개풍군(‘려현리’)	1(1.1)
	닭	사육지	장풍군(‘맹정리’)	2(2.2)
	매	산지 숲, 바위산, 물가, 해안절벽	판문군(덕수리, 대룡리, 동창리, 선적리), 장풍군(월고리, 대덕산리, 국화리)	9(9.8)
	물오리	하천, 호숫가의 풀밭이나 습지	판문군(평화리)	1(1.1)
	박쥐	동굴	장풍군(장좌리)	1(1.1)
	부엉이	산지 숲	개성시(고려동), 판문군(판문읍, 조강리), 장풍군(월고리)	5(5.4)
	솔개	산지, 해안, 물가	장풍군(장좌리)	1(1.1)
	수리	산지, 습지, 절벽	장풍군(월고리)	1(1.1)
	오리	물가	판문군(전재리), 장풍군(장좌리, 국화리)	3(3.2)
	참새	교외, 농경지, 숲	개풍군(남포리), 판문군(조강리), 장풍군(고읍리)	3(3.2)
	학	논밭, 해안, 갯벌	판문군(선적리), 장풍군(구화리, 장좌리, 장학리)	4(4.3)
	할미새	땅위, 바위틈	장풍군(석둔리)	1(1.1)
	황새	호수, 못, 늪, 초원	판문군(화곡리, 대룡리, 전재리), 장풍군(자하리)	4(4.3)
		기타(봉새, 새)	판문군(화곡리), 장풍군(사시리, 가천리)	3(3.2)
	소계			
양서류	두꺼비	습한 곳	개풍군(‘려현리’)	1
파충류	구렁이	민가의 돌담, 방축, 밭둑의 돌틈	장풍군(장풍읍)	1
	뱀	물가나 낮은 산지	개풍군(광답리), 판문군(신흥리, ‘림한리’), 장풍군(사시리, ‘림강리’, 사암리)	7
	자라	하천, 못, 늪	개풍군(‘려현리’), 장풍군(장좌리, 월고리, 고읍리)	5
절지동물	가재	계류, 냇물	장풍군(국화리, 가천리, 장학리)	3
	곤충	불개미	판문군(평화리)	1
	기타	거머리	담수, 바다, 육지	1
총계				92(100.0)

* 동물의 주요 서식지는 <http://100.naver.com>에서 참조하였음.
 자료 : 사회과학원(2002)

내(7)는 사용빈도가 높은 데 비하여 탄(2), 강(2), 돌이(1), 포(1)는 1~2개 정도만 접미어로 쓰이고 있다.

3) 동·식물 관련 지명의 특성

먼저 동물은 표 3에서 보여지듯이 36종의 동물이 지명에 반영되었는데 이중에 가장 많이 지명에 투영된 동물은 조류(47.8%)와 포유류(31.5%)이다. 이외에도 극히 일부이지만 구렁이, 뱀, 자라와 같은 파충류(14.1%)와 가재와 같은 절지동물(3.2%), 그리고 곤충(1.1%), 양서류(1.1%) 등이 지명에 투영되었다. 먼저 조류 중에서는 산지의 숲이나 바위산에 서식하는 매(9.8%), 산지 숲에 서식하는 부엉이(5.4%), 논밭이나 갯벌에 서식하는 학(4.3%), 연못과 늪에 서식하는 황새(4.3%) 등이 지명에 투영되었다. 다음 포유류 중에서는 삼림에 서식하는 호랑이(8.7%), 곰(4.3%), 노루(3.2%), 여우(3.2%)와 파충류 중에서는 물가나 낮은 산지에 서식하는 뱀(7.6%)과 하천·연못·늪에 서식하는 자라(5.4%)가 주로 지명에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이밖에 극히 일부이긴 하지만 습한 곳에 서식하는 두꺼비(1.1%)와 거머리(1.1%), 계류 및 냇물에 서식하는 가재(3.2%), 그리고 땅속 또는 고목에 서식하는 불개미가 지명에 반영되었다.

다음 식물은 52개의 수목이 지명에 투영되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개성지역 지명에 투영된 수목은 참나무과의 하록낙엽수림(夏綠落葉樹林)인 밤나무(16)이다. 밤나무 다음으로는 모든 수종 중에서 가장 널리 분포하는 상록침엽교목인 소나무(13개)와 낙엽교목인 배나무(10개), 느티나무(8개), 버드나무(8개)가 지명에 투영되었다. 그리고 극히 일부이지만 상록교목인 대나무와 낙엽교목인 오리나무, 단풍나무, 참나무, 물푸레나무, 매화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도 지명에 투영되었다.

4) 기타 자연지명의 특성

기타지명은 천정, 벌, 토양, 벼랑, 바위와 관련된 지명으로 개성자연지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8 퍼센트로 극히 적다. 이러한 기타지명 분류 시 우물·정

(井)·냉정(冷井)·웅덩·약수·천(泉)·어수(왕이 사용하던 우물)·온천·못·소·담·연이 들어간 것은 천정 관련 지명, 하천 연안의 벌을 지칭하는 것은 평야 관련 지명, 진흙 또는 붉은 색 토양과 관련된 지명은 토양 관련 지명, 벼랑을 의미하는 북한식 방언 '비양'과 '빈양' 그리고 벼랑을 뜻하는 우리말 '벼랑'과 '바람벽'이 들어간 지명은 벼랑 관련 지명, 그리고 암·바위·석자가 들어간 것은 바위 관련 지명으로 분류하였다.

먼저 바위 관련 지명은 총 79개인데 이를 유형구분해 보면, 사람(동자), 동물(소, 용, 원숭이, 호랑이), 생활도구(병, 병풍, 독, 가마, 장막, 널, 칼) 등의 형상을 바탕으로 이름이 정해진 것이 30개(37.9%)로 가장 많다. 그 다음으로는 정확한 유래를 알 수 없는 것이 26개(32.9%),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 19개(24.0%), 신앙(입석, 무당, 신주)에서 유래된 것이 4개(5.1%)이다.

다음 천정은 음료 및 관개와 관련하여 생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자연적 요소이기 때문에 지명에 많이 활용되었다. 북한 개성지역에서 천정 지명의 수는 84개인데 이러한 천정 지명은 우물을 의미하는 정·천·우물·어수·냉정·약수와 늪을 의미하는 소(沼), 연못을 의미하는 못(池)과 담(潭),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깊은 물을 의미하는 연(淵) 등이 지명의 접미어로 쓰이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접미어의 지명활용 빈도수를 살펴보면, 한글화된 우물이 48개(57.1%)로 가장 많고, 우물 다음으로는 늪을 의미하는 소가 12개(14.3%), 그리고 우물의 한자음인 정과 천은 각각 8개(9.5%)와 3개(3.6%)씩 사용되고 있다. 이밖에 약수(1.2%), 어수(2.4%), 못(2.4%), 담(3.6%), 연(2.4%), 웅덩이(1.2%), 그리고 찬우물을 의미하는 한자음 냉정(1.2%)도 일부 분이지만 천정지명 접미어로 사용되고 있다.

셋째, 벼랑은 산이 무너졌거나, 하천이 흐르면서 양쪽 언덕을 침식하여 만든 급한 경사지이다. 이러한 벼랑은 그 이름을 정할 때 애(崖)와 안(岸)과 같은 한자식 표기를 하지 않고 벼랑을 뜻하는 북한식 방언 '비양'과 '빈양'을 지명 끝에 붙여서 쓰거나 우리말 '벼랑'과 '바람벽'을 지명말미에 붙여서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벼랑지명 접미어의 사용비율을 보면, '빈양'이 46.2 퍼센트로 가장 많고, '비양' 다음으로는 '비양'

과 '벼랑' 이 각각 15.4 퍼센트, 그리고 '바람벽' 은 7.7 퍼센트 정도 사용되었다.

이밖에 토양지명과 평야지명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개성지역에 나타난다. 먼저 토양지명은 붉은 흙, 진흙, 붉은 진흙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중 붉은 흙과 관련된 지명은 전체 토양지명중 62.5퍼센트를 차지하고 진흙과 관련된 지명은 12.5 퍼센트, 붉은 진흙과 관련된 지명은 37.5 퍼센트를 차지한다. 다음 평야지명은 자연지명 중에서 빈도수가 가장 적은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야지명은 들, 벌, 야(野), 원(原)을 접미어로 붙여쓰는 것이 통례이나 북한 개성지역의 경우는 평야지명 뒤에 '밭' 을 접미어로 붙여쓰는 것이 특징이다. 관련 사례로는 '벼드나무밭' 과 '광대밭' 이 있다.

3. 자연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1) 산지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산지지명에 나타난 개성지역 자연경관특성은 산지 지명 구성요소의 공간분포, 산의 형태, 그리고 자연현상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산지지명은 산지 지명 구성요소별로 다음과 같은 공간적 분포 특성을 보인다(표 1). 먼저 '산' 을 의미하는 지명은 총 517개인데 이중에 90 퍼센트는 개풍군, 판문군, 장풍군에 집중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골짜기를 의미하는 지명은 1,388개로 산지지명의 절반을 차지하고, 지명

의 76 퍼센트가 장풍군과 판문군에 집중분포한다. 그리고 봉우리 지명은 총 159개로 지역적인 편재 없이 비교적 고르게 개성시에 20.1 퍼센트, 개풍군에 27.6 퍼센트, 판문군에 24.5 퍼센트, 장풍군에 27.6 퍼센트 분포한다. 다음 산지의 양쪽사면을 연결하는 고개와 관련된 지명은 총 692개로 주로 판문군(31.7%)과 장풍군(29.7%)에 집중분포한다. 그리고 산모퉁이 관련 지명은 총 24개로 판문군과 장풍군에만 집중분포하고, 산등성이 관련 지명(18개)은 72.2 퍼센트가 장풍군에 집중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산지지명은 총 2,798개로 전체 자연지명의 82.5 퍼센트를 차지하고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시가지로 구성된 개성시 보다는 산지구성비율이 높은 장풍군, 판문군, 개풍군에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개성시 영역에서 산지가 61.6 퍼센트를 차지하고 신기구조운동이후 산지들이 침식 삭박당하여 거의 모든 지역이 야산과 준평원으로 구성된 이곳 지리적 환경의 특수성이 그대로 지명에 반영되어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조사 결과(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에 의하면, 개성은 북부에서 남부로 가면서 기복량이 점차 작아지고, 기복량은 북동부(장풍일대)와 북부에서는 300m, 개풍군에서는 100~200m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한편 판문군의 경우는 산지지명이 821 개인데 개성공단조성을 위해 산을 허물고 평탄화하는 작업(사진1)을 2004년 이래 계속하고 있어 향후 이 일대의 산지와 관련된 지명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둘째, 지명에 나타난 개성지역 산은 둥근 형태를 띠는 것이 특징이다. 지명에 반영된 개성지역의 산의 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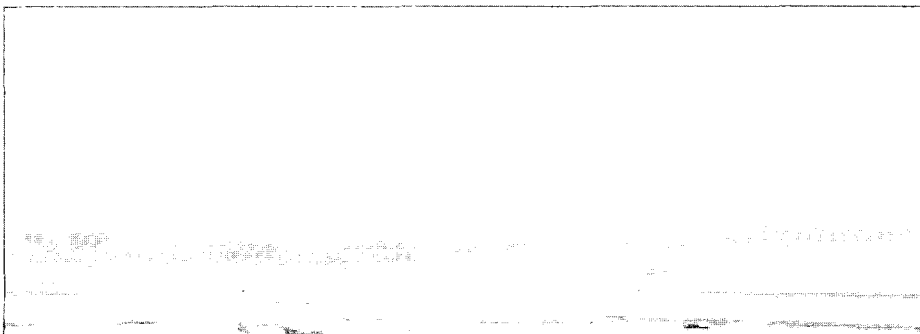


사진 1. 개성공단 1단계 개발지역(2006년 4월 26일, 필자촬영)

표 4. 산지지명의 지역별 구성

지역	분류								지역	분류									
	산	골짜기	봉우리	고개	산모퉁이	산등성이	계	비율(%)		산	골짜기	봉우리	고개	산모퉁이	산등성이	계	비율(%)		
개성시	고려동	0	0	1	2	0	0	3	0.1	개풍군	개풍읍	0	0	1	2	0	0	3	0.1
	해운동	0	0	0	0	0	0	0	0.0		목산리	0	0	0	0	0	0	0	0.0
	자남동	2	1	2	0	0	0	5	0.2		연통리	2	1	2	0	0	0	5	0.2
	송악동	1	0	0	3	0	0	4	0.1		해선리	1	0	0	3	0	0	4	0.1
	북안동	1	0	0	1	0	0	2	0.1		고남리	1	0	0	1	0	0	2	0.1
	만월동	0	0	0	6	0	0	6	0.2		오산리	0	0	0	6	0	0	6	0.2
	남안동	0	0	0	0	0	0	0	0.0		광담리	0	0	0	0	0	0	0	0.0
	동홍동	1	0	0	0	0	0	1	0.1		목송리	1	0	0	0	0	0	1	0.1
	관흥동	0	0	0	2	0	0	2	0.1		연강리	0	0	0	2	0	0	2	0.1
	내성동	2	0	0	2	0	0	4	0.1		신서리	2	0	0	2	0	0	4	0.1
	동현동	0	0	0	3	0	0	3	0.1		신성리	0	0	0	3	0	0	3	0.1
	선죽동	0	0	0	0	0	0	0	0.0		풍덕리	0	0	0	0	0	0	0	0.0
	운학1동	0	0	0	3	0	0	3	0.1		해평리	0	0	0	3	0	0	3	0.1
	운학2동	2	0	0	4	0	0	6	0.2		'러현리'	2	0	0	4	0	0	6	0.2
	성남동	1	0	0	11	0	0	12	0.4		삼성리	1	0	0	11	0	0	12	0.4
	덕암리	5	4	1	4	0	1	15	0.5		남포리	5	4	1	4	0	1	15	0.5
	보선동	1	0	0	1	0	0	2	0.1		신광리	1	0	0	1	0	0	2	0.1
	승전동	6	0	2	8	0	0	16	0.6		광수리	6	0	2	8	0	0	16	0.6
	'룡산동'	8	0	5	1	0	0	14	0.5		'룡산리'	8	0	5	1	0	0	14	0.5
	박연리	7	43	3	11	0	0	64	2.3		소계	232	228	44	149	0	1	654	23.3
	삼거리	3	20	11	9	0	0	43	1.5		비율(%)	44.9	16.4	27.6	21.5	0.0	5.5		
	'룡흥동'	10	37	6	27	0	0	80	2.9		장풍읍	4	86	9	11	0	0	110	3.9
	남문동	0	0	0	0	0	0	0	0.0		덕적리	9	39	4	16	0	0	65	2.3
	역전동	2	0	0	2	0	0	4	0.1		자하리	4	27	2	6	0	0	39	1.4
	남산1동	0	0	0	2	0	0	2	0.1		구화리	7	30	4	2	0	0	43	1.5
	남산2동	0	0	0	0	0	0	0	0.0		석촌리	2	44	1	12	0	0	59	2.1
부산동	0	0	0	0	0	0	0	0.0	장좌리	3	33	0	17	0	3	56	2.0		
방직동	0	0	0	1	0	0	1	0.0	가곡리	11	12	1	10	3	0	37	1.3		
은덕동	1	1	1	14	0	0	17	0.6	십탄리	2	26	0	5	0	0	33	1.2		
소계	53	106	32	117	0	1	309	11.0	월고리	5	47	6	15	0	8	81	2.9		
비율(%)	10.2	7.6	20.1	16.9	0.0	5.5			대덕리	9	4	0	3	0	0	16	0.5		
판문군	판문읍	6	6	0	16	0	2	30	1.0	장풍군	사서리	3	18	0	3	0	0	24	0.9
	진봉리	4	33	2	19	1	0	59	2.1		고읍리	9	17	1	11	0	0	38	1.3
	대련리	12	30	0	7	0	0	49	1.8		국화리	12	29	0	17	0	0	58	2.1
	상도리	7	30	6	14	0	0	57	2.0		'뫼강리'	4	23	0	11	1	0	39	1.4
	화곡리	8	28	0	11	3	1	48	1.7		석둔리	3	24	5	4	1	0	37	1.3
	'령정리'	8	46	2	1	2	0	59	2.1		술현리	8	41	4	9	0	0	62	2.2
	신흥리	7	36	1	9	0	0	53	1.9		귀촌리	12	24	7	7	4	2	56	2.0
	월정리	7	22	4	11	1	0	45	1.6		'랭정리'	3	19	0	11	1	0	34	1.2
	조강리	9	12	5	15	2	0	43	1.5		가천리	1	25	0	8	0	0	34	1.2
	'뫼한리'	13	22	6	17	0	0	58	2.1		장학리	1	28	0	10	0	0	39	1.4
	덕수리	9	17	1	19	4	0	50	1.8		세골리	0	36	0	18	0	0	54	1.9
	대룡리	5	10	3	14	0	0	32	1.1		사암리	0	0	0	0	0	0	0	0.0
	동창리	3	11	1	16	0	0	31	1.1		'라부리'	0	0	0	0	0	0	0	0.0
	삼봉리	12	31	2	4	1	0	50	1.8		항동리	0	0	0	0	0	0	0	0.0
	평화리	1	13	1	12	0	0	27	0.9		소계	112	629	44	206	10	13	1,014	36.2
	선적리	6	65	4	18	0	0	39	3.3		비율(%)	21.6	45.3	27.6	29.7	41.6	72.2		
	전재리	3	12	1	17	0	0	33	1.2		총계	517	1,388	159	692	24	18	2,798	
	판문점리	0	1	0	0	0	0	1	0.0		비율(%)	18.5	49.6	5.7	24.7	0.8	0.6	100.0	
	소계	120	425	39	220	14	3	821	29.3										
비율(%)	23.2	30.6	24.5	31.7	58.3	16.6													

자료 : 사회과학원(2002)

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둥근(圓) 모양과 삿갓(笠)모양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용, 호랑이, 개, 소, 자라, 두꺼비 등의 동물 형상과 도끼, 송곳, 쇠스랑, 장고 등의 일상용구 형상이 많다. 이외에도 다락, 누에, 개미, 넓은 이마 형상도 일부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자연현상 측면에서 개성지역의 산지는 안개와 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먼저 안개에서 연유된 ‘안개산’, ‘안개골’, ‘구름고개’란 지명은 개풍군(광답리, 광수리), 판문군(대련리, 화곡리), 장풍군(석둔리)에 각각 분포하는데 이 지역은 모두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차고 무거운 복사무(輻射霧)가 집적되기 쉽고, 또 하천으로부터 수증기를 대량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안개발생 빈도가 잦은 편이다. 다음 돌과 관련된 ‘석밭’, ‘돌고개’, ‘돌고개봉’, ‘돌두덩이’, ‘돌고지골’, ‘돌맹이골’란 지명은 개풍군(신광리, 묵산리, 광수리, 오산리), 판문군(상도리, 덕수리, 평화리), 장풍군(장학리, 가곡리, 고읍리, 솔현리, ‘맹정리’)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산지 계곡하천의 상류지역으로 하천의 침식에 의해 바위조각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2) 하천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하천지명을 통해 본 개성지역의 하천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개성지역의 하천은 지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개성지역의 하천지명은 총 159개로 산지 지명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하천의 규모별로 살펴보면 큰 하천을 의미하는 ‘강’을 접미어로 사용한 지명은 2개(1.3%), 작은 하천 ‘천’을 접미어로 사용한 지명은 50개(31.4%), 하천의 최소 단위인 ‘개울(溪)’을 접미어로 사용한 지명은 71개(44.6%), 기타는 36개(22.6%)이다. 이처럼 개성지역은 하천지명에 소하천을 의미하는 지명의 구성비율이 전체의 76.0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로 지류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이 점은 북한의 연구결과(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에 의해서도 밝혀졌는데, 개성지역은 예성강, 한강, 임진강을 제외하고 길이가 5km 이상 되는 하천이 총 30개이며, 그 가운데 10km

이상 되는 하천이 11개, 20km 이상 되는 하천이 4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둘째, 개성지역의 동대문 개울은 물길이 일정하지 않고 모래의 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동대문 개울의 또 다른 이름인 ‘마미천⁸⁾’, ‘사천⁹⁾’, ‘삼댐¹⁰⁾’의 의미를 살펴보면, 개성의 동대문 개울은 물길이 말꼬리처럼 생기고 인삼 다음으로 몸에 좋은 모래찜 치료를 할 정도로 모래가 풍부한 하천이다. 이러한 동대문 개울의 특성은 2005년 9월 2일 답사에서 확인을 하였는데 장단 부근의 동대문 개울은 모래가 하천의 하도를 가득 메워서 일정한 물길이 없고 군데군데 물구덩이가 조금 있는 정도였다.

셋째, ‘복닥골’과 ‘마른 개울’ 그리고 ‘무네미’와 ‘넓은 개울’이라는 지명은 개성지역 하천이 불안정하고 유량 변동이 매우 큼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판문군 상도리의 ‘복닥골’과 개성시 덕암리의 ‘마른 개울’은 매해 물이 부족하여 복닥칠을 치거나 개울물이 마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으로 개성 지역의 갈수기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판문군 ‘림한리’의 ‘무네미’와 장풍군 덕적리의 ‘넓은 개울’은 장마철마다 임진강과 신천이 범람한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이러한 지명은 판문군 ‘림한리’와 장풍군 덕적리 지역에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피해가 매해 발생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지명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개성지역의 하천은 유량이 매우 불안정한 편인데 이것은 여름철 집중호우¹¹⁾, 좁은 유역 면적, 급한 하상의 경사¹²⁾, 그리고 벌목에 의한 삼림의 황폐화¹³⁾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개성시 은덕동의 ‘굽돌이 개울’, 판문군 전재리의 ‘굽돌개울’, 장풍군 가천리의 ‘휘메기’, 장풍군 세골리의 ‘무돌이’ 지명은 이들 지명 분포 지역의 하천 곡류(曲流)현상을 반영한다. 이러한 지명이 분포한 지역은 하천이 평지에 위치한 곳으로서 산지에서 운반된 토사가 퇴적되기 쉽고, 또 유속이 매우 느리기 때문에 하천이 굽이쳐 흐르는 것이 특징이다.

다섯째, 서해바다의 영향으로 강물이 누런 감탕물이라는 ‘황강’, 조수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반포동’, 바닷물결이 기슭을 친다는 의미의 ‘해랑동’, 그리고 누런 밀물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황개골’ 지명은 이들

표 5. 하천지명의 지역별 구성

지역	분류	하천	지역	분류	하천	
						지역
개성시	고려동	4	개풍군	개풍읍	1	
	해운동	2		목산리	1	
	자남동	0		연릉리	2	
	송악동	2		해선리	0	
	북안동	0		고남리	1	
	만월동	0		오산리	0	
	남안동	0		광담리	2	
	동홍동	1		목송리	1	
	관훈동	1		연강리	1	
	내성동	1		신서리	2	
	동현동	1		신성리	0	
	선죽동	1		풍덕리	1	
	운학1동	1		해평리	2	
	운학2동	0		'려현리'	0	
	성남동	3		삼성리	1	
	덕암리	5		남포리	1	
	보선동	0		신광리	2	
	승전동	6		평수리	2	
	'룡산동'	2		'룡산리'	2	
	박연리	5		소계	45	
	삼거리	2		비율(%)	26.3	
	'룡흥동'	3		장풍군	장풍읍	7
	남문동	0			덕적리	7
	역전동	0			자하리	1
	남산1동	0			구화리	1
	남산2동	0			석촌리	5
부산동	0	장좌리	5			
방직동	0	가곡리	1			
은덕동	0	십탄리	1			
소계	45	월고리	5			
비율(%)	26.3	대덕리	5			
판문군	판문읍	5	사시리		1	
	진봉리	3	고읍리		1	
	대련리	4	국화리		2	
	상도리	4	'림강리'		3	
	화곡리	2	석둔리		1	
	'명정리'	1	솔현리		1	
	신흥리	7	귀촌리	2		
	월정리	3	'맹정리'	0		
	조강리	1	가천리	2		
	'림한리'	2	장하리	2		
	덕수리	4	세골리	3		
	대룡리	2	사암리	0		
	동창리	6	'라부리'	0		
	삼봉리	1	항동리	0		
	평화리	3	소계	56		
	선적리	3	비율(%)	32.7		
전재리	3	총계	171			
판문점리	0					
소계	54					
비율(%)	31.5					

자료 : 사회과학원(2002)

지명이 분포한 개풍군의 신서리, 삼성리, 신광리 그리고 판문군 '림한리' 일대의 하천이 조석의 영향을 받는 '감조하천'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3) 등·식물 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1) 동물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개성지역은 저지대 동물상의 전형적인 분포지역으로 무척추동물 253종과 척추동물 363종을 포함하여 총 616종이 서식하는데 이중에 지명에 투영된 동물은 표 3에서 보여지듯이 36종이다. 이러한 36종의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지명에 반영된 동물은 매, 뱀, 범, 부엉이, 자라이다. 우선 바위산과 산지의 숲에 서식하는 매와 관련된 지명은 개성지역에서 산지의 구성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성시와 개풍군에는 없고,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은 판문군의 덕수리, 대룡리, 동창리, 선적리와 장풍군의 월고리, 대덕산리, 국화리 일대에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매 관련 지명분포지역은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산지 지명의 구성비율이 전체의 12.8 퍼센트를 차지할 정도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아 매가 서식하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다음 뱀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에는 없고 지명 중 85 퍼센트가 판문군의 신흥리, '림한리', 선적리 그리고 장풍군의 사시리, '림강리', 사암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뱀 관련 지명 분포지역은 모두 뱀이 서식하기 유리한 하천과 100m 내외의 낮은 산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셋째, 범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와 판문군에는 없고 지명 중 67 퍼센트가 장풍군의 장풍읍, 덕적리, 고읍리, 세골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범 관련 지명분포지역은 표 4에서 보여지듯이 산, 골짜기, 봉우리, 고개가 많아 비교적 범이 서식하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

넷째, 산지 숲에 서식하는 부엉이와 관련된 지명은 개풍군에는 없고, 지명 중 60 퍼센트가 판문군의 판문읍과 조강리 일대에 집중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지역은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산, 골짜기, 봉우리, 고개, 산모퉁이, 산등성이가 있어 부엉이가 서식하

표 6. 개성지역 지명에 투영된 식생과 식생지명의 공간분포

유형	식생	주요 서식지*	식생지명 분포지역	계(%)
하록 낙엽 활엽수	밤나무	산기슭과 밭둑	개풍군(신서리), 판문군(상도리, 신흥리, 조강리, 대룡리, 평화리, 선적리), 장풍군(자하리, 가곡리, 사시리, 국화리, 솔현리, 세골리)	16(11.8)
	배나무	온난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곳	개성시(만월동), 개풍군(해평리), 판문군(‘령정리’, 동창리), 장풍군(장풍읍, 석촌리, 월고리, 국화리, 솔현리, 장학리)	10(7.4)
	느티나무	산기슭, 산골짜기, 마을부근의 흩어 깊고 진 땅	개성시(선죽동, 삼거리), 판문군(진봉리, 신흥리, 조강리, ‘립한리’), 장풍군(자하리, 구화리)	8(5.9)
	버드나무	들과 냇가	개성시(동홍동), 개풍군(신서리), 판문군(진봉리, 선적리), 장풍군(석촌리, 월고리, 석둔리)	8(5.9)
	단풍나무	산지의 계곡	판문군(‘립한리’, 덕수리), 장풍군(덕적리, 장좌리, 세골리)	5(3.7)
	감나무	따뜻한 지방의 양지	판문군(신흥리)	1(0.7)
	대추나무	마을부근	개성시(운학1동), 판문군(상도리), 장풍군(가천리)	3(2.2)
	매화나무	양지바른 사질양토	개풍군(신서리), 판문군(‘립한리’)	3(2.2)
	물푸레나무	산기슭이나 골짜기 불가	개성시(은덕동), 장풍군(가천리)	2(1.5)
	복숭아나무	산도가 낮은 토양	개성시(해운동), 판문군(조강리)	2(1.5)
	사시나무	산지	판문군(삼봉리, 대련리)	3(2.2)
	살구나무	전국	판문군(‘령정리’, 선적리), 장풍군(자하리)	3(2.2)
	소태나무	산지	개풍군(연강리), 장풍군(장좌리, 귀촌리)	3(2.2)
	앵두나무	인간주변의 산지	개성시(관훈동), 장풍군(솔현리)	2(1.5)
	오동나무	평남이남 지역	판문군(‘령정리’, 덕수리)	3(2.2)
	오리나무	습지근처	판문군(상도리, ‘령정리’, 신흥리, 삼봉리), 장풍군(석촌리, 장학리)	6(4.4)
	웃나무	전국	개풍군(남포리), 판문군(동창리), 장풍군(덕적리)	3(2.2)
	은행나무	고원지대를 제외한 온대지역	판문군(신흥리), 장풍군(‘립강리’)	2(1.5)
	참나무	산기슭 양지바른 곳	판문군(신흥리, 평화리, 선적리), 장풍군(장풍읍)	4(2.9)
	벗나무	산지, 마을부근, 길가	판문군(선적리), 장풍군(솔현리)	2(1.5)
	뿔나무	온대, 아열대 지방	판문군(상도리)	1(0.7)
	개암나무	산기슭 양지	판문군(월정리)	1(0.7)
	느릅나무	골짜기, 개울가	판문군(‘령정리’)	1(0.7)
	다래나무	깊은 산 숲속	장풍군(‘립강리’)	1(0.7)
가둑나무	산중턱, 산기슭	판문군(신흥리)	1(0.7)	
상록 침엽수	소나무	사질토양, 산지사면	개성시(송악동, 덕암리), 개풍군(목송리, 광수리), 판문군(판문읍, 상도리, 월정리, 덕수리), 장풍군(장좌리, 가곡리)	13(9.6)
	백양나무	습지	장풍군(사시리)	1(0.7)
	잣나무	해발고도 1000m 이상 지역	장풍군(장풍읍, 솔현리, 세골리)	3(2.2)
상록 교목	전나무	중·북부 지방	개성시(‘룡홍동’), 판문군(덕수리)	2(1.5)
	대나무	비가 많은 열대 및 온대 지역	개성시(은덕동), 개풍군(신서리), 판문군(‘령정리’, 삼봉리, 전재리), 장풍군(국화리, 솔현리)	7(5.2)
여러해 살이 풀	향나무	전지역	개성시(‘룡산동’), 판문군(화곡리, 평화리, 월정리)	4(2.9)
	국화	서늘하며 배수가 양호한 곳	장풍군(국화리)	1(0.7)
	쑥	양지바른 곳	판문군(대룡리, 동창리), 장풍군(사시리)	5(3.7)
한해 살이 풀	잔디	양지바른 산과 들의 길가	판문군(신흥리)	1(0.7)
	강아지풀	전국의 들과 길가	판문군(‘립한리’)	1(0.7)
기타	면화	15℃ 이상, 연강우량 1000-1500mm 지역	판문군(화곡리)	1(0.7)
	정자나무	집이나 길가	개성시(박연리), 판문군(상도리)	2(1.5)
총계				135(100.0)

* <http://100.naver.com>, <http://empas.com>의 내용을 참조하였음.
 자료 : 사회과학원(2002)

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섯째, 파충류 자라와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와 판문군에는 전혀 없고 지명의 80 퍼센트가 장풍군의 장좌리, 월고리, 고읍리 일대에만 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분포지역 중에서 장풍군의 고읍리를 제외한 장풍군의 장좌리와 월고리는 자라의 서식환경인 습지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먼저 장좌리는 자라가 서식하기 용이한 늪지(가마소, 단풍소, 모듬소, 샘소)와 장좌천이 흐르고, 월고리의 경우는 유로가 긴 장수내를 비롯하여 두무개울, 앞내개울, 옥산개울, 월릉개울 등의 소하천 5개가 있다.

(2) 식생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온대 북부식물과 온대 남부식물 분포의 접이시대인 개성지역에는 북한의 조사결과(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에 의하면 892종의 식물과 24개의 변종이 있다. 이중에 지명에 투영된 것은 표 6에서 보여지듯이 52종이다. 이러한 52종의 식물 중에서 가장 많이 지명에 반영된 것은 밤나무, 소나무, 배나무, 느티나무, 버드나무이다. 먼저 하록낙엽활엽수인 밤나무에서 유래된 지명은 개성시에는 없고 지명의 90 퍼센트가 판문군의 상도리, 신흥리, 조강리, 대룡리, 평화리, 선적리와 장풍군의 자하리, 가곡리, 사시리, 국화리, 솔현리, 세골리에 집중 분포한다. 밤나무는 서식장소가 산기슭이나 밭둑인데 이들 지역은 모두 밤나무가 자생하기 좋은 산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둘째, 상록침엽수인 소나무와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송악동, 덕암리), 개풍군(목송리, 광수리), 판문군(판문읍, 상도리, 월정리, 덕수리), 장풍군(장좌리, 가곡리)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300미터 미만의 산지로 해발 300 미터 이하에 소나무 군락이 집중분포하는 식물의 수직적 분포와도 일치한다.

셋째, 온난하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서 잘 자라는 배나무와 관련된 지명은 지명의 60 퍼센트가 장풍군의 장풍읍, 석촌리, 월고리, 국화리, 솔현리, 장학리에 집중분포하고 나머지 40퍼센트는 개성시의 만월동, 개풍군의 해평리, 판문군의 '령정리'와 동창리에 분산 분포한다. 이와 같은 지명의 분포지역은 북한에

서 가장 따뜻한 지역으로 연평균 기온 10.1℃, 1월 평균기온 -5.4℃로서 양강도 해산에 비하여 13℃이상 높으며 7~8월 평균기온은 3~5℃나 높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 강수량은 연평균 강수량이 1,329mm로서 북한에서 가장 많은 편에 속하며 지역별로는 해안에서 멀어질수록 강수량이 많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해안에서 가장 거리가 먼 장풍군은 연평균 강수량이 1,547mm로서 가장 많고, 장풍군에서 해안쪽으로 1km씩 이동함에 따라 강수량이 10mm씩 줄어든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

넷째, 흙이 깊고 진땅에서 서식하는 느티나무와 관련된 지명은 개풍군에는 전혀 분포하지 않고 지명의 50 퍼센트가 판문군의 진봉리, 신흥리, 조강리, '립한리' 일대에 분포하고 25퍼센트는 개성시의 선죽동과 삼거리에 그리고 나머지 25 퍼센트는 장풍군의 자하리와 구화리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개성시 선죽동을 제외하고 모두 느티나무가 서식하기 좋은 골짜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끝으로 냇가에서 자생하는 버드나무와 관련된 지명은 지명의 약 40 퍼센트가 장풍군의 석촌리, 월고리, 석둔리 일대에 분포하고 나머지 60 퍼센트는 개성시의 동흥동, 개풍군의 신서리, 판문군의 진봉리, 선적리 일대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공통적으로 버드나무가 자생하기 좋은 하천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4) 기타 자연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

자연지명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적은 바위, 천정, 벼랑, 토양, 평야 관련 지명은 별도로 기타 자연지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지명을 통해 본 개성의 자연경관특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바위와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의 송악동, 판문군의 선적리, 장풍군의 덕적리, 가곡리, 십탄리 지역에 집중분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 바위 관련 지명 분포지역은 모두 바위가 형성될 수 있는 산과 하천이 있고 또 사람의 눈에 띄어 이름이 붙여질 수 있도록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예를 들어 개성시 송악동의 경우는 송악산(489m)과 구야개울 및 광명개울이 있

표 7. 기타 자연지명의 지역별 구성

지역	분류						지역	분류						
	천정	별	토양	벼랑	바위	천정		별	토양	벼랑	바위			
개성시	고려동	0	0	0	0	1	개풍읍	개풍읍	4	0	0	0	0	
	해운동	1	0	0	0	0		묵산리	1	0	0	0	0	
	자남동	0	0	0	0	0		연릉리	0	0	0	0	2	
	송악동	0	0	0	0	7		해선리	0	0	0	0	0	
	북안동	2	0	0	0	0		고남리	0	0	0	0	0	
	만월동	0	0	0	0	0		오산리	0	0	0	0	0	
	남안동	0	0	0	0	0		광답리	2	0	1	0	0	
	동흥동	0	0	0	0	0		묵송리	0	0	0	0	0	
	관훈동	0	0	0	0	1		연강리	1	0	1	0	0	
	내성동	1	0	0	0	0		신서리	3	0	0	0	0	
	동현동	0	0	0	0	0		신성리	0	0	0	0	2	
	선죽동	0	0	0	0	0		풍덕리	0	0	0	0	0	
	운화1동	0	0	0	0	0		해평리	0	0	0	0	0	
	운화2동	0	0	0	0	0		'려현리'	1	0	0	0	0	
	성남동	2	0	0	0	2		삼성리	1	0	1	0	0	
	덕암리	3	0	0	0	1		남포리	1	0	0	0	0	
	보선동	0	0	1	0	2		신광리	2	0	0	0	0	
	승전동	0	0	0	0	0		광수리	0	0	1	0	0	
	'룡산동'	2	0	0	0	2		'룡산리'	0	0	0	0	0	
	박연리	0	0	0	0	2		소계	16	0	4	0	4	
	삼거리	0	0	0	0	0		비율(%)	24.6	0.0	26.6	0.0	5.0	
	'룡흥동'	0	0	0	0	2		장풍읍	장풍읍	0	0	1	0	3
	남문동	0	0	0	0	0			덕적리	0	0	0	0	11
역전동	0	0	0	0	1	자하리	0		0	0	0	1		
남산1동	5	0	0	0	0	구화리	0		0	0	0	0		
남산2동	0	0	0	0	0	석촌리	0		0	0	0	7		
부산동	0	0	0	0	0	장좌리	0		0	1	0	2		
방직동	0	0	0	0	02	가곡리	1		0	0	1	9		
은덕동	0	0	0	0	0	십탄리	0		0	0	1	2		
소계	16	0	2	0	23	월고리	0		0	0	0	2		
비율(%)	24.6	0.0	13.3	0.0	29.1	대덕리	0		0	0	1	1		
판문군	판문읍	0	0	0	0	0	장풍군		사시리	0	0	0	0	0
	진봉리	0	0	1	0	0			고음리	0	0	0	0	0
	대련리	0	0	0	0	0			국화리	0	0	1	0	0
	상도리	4	0	1	0	0		'림강리'	0	0	0	2	0	
	화곡리	2	0	0	0	0		석둔리	0	0	0	2	0	
	'명정리'	1	0	0	0	0		솔현리	1	0	0	0	0	
	신흥리	0	0	0	0	0		귀존리	0	0	0	2	0	
	월정리	3	0	0	0	0		'맹정리'	1	0	2	0	0	
	조강리	7	0	0	1	0		가천리	0	0	0	0	0	
	'립한리'	4	0	0	0	0		장학리	1	0	0	0	0	
	덕수리	2	0	0	0	0		세골리	0	0	0	1	0	
	대룡리	1	0	0	0	0		사암리	0	0	0	0	0	
	동창리	0	0	0	0	0		'라부리'	0	0	0	0	0	
	삼봉리	3	0	0	0	2		항동리	0	0	0	0	0	
	평화리	1	0	0	0	4		소계	4	0	5	10	38	
선적리	0	2	0	0	5	비율(%)	6.1	0.0	13.3	76.9	48.1			
전재리	0	0	1	0	3	총계	65	2	15	13	79			
판문점리	1	0	1	2	0									
소계	29	2	4	3	14									
비율(%)	44.6	100.0	26.6	23.0	17.7									

자료 : 사회과학원(2002)

고 인근에 광명동과 구야동 마을이 있다. 판문군 선적리의 경우는 약 150m 높이의 산지 가마봉, 국수봉, 날가리봉, 다락산, 수리봉이 있고 하천으로는 서암천이 있으며 인근에 산직동이란 마을이 있다. 그리고 장풍군의 덕적리는 427m 높이의 원통산과 하천으로 구암동 개울, 넓은 개울, 연지동 개울, 빙석동 개울, 독주동 개울이 있고 인근에 솔랑동과 심복동 마을이 있다. 장풍군 석촌리의 경우는 부대산(463m)과 웃도랑 하천이 있고 인근에 천작동이란 마을이 있다. 끝으로 장풍군 가곡리는 동쪽에 원통산이 있고 하천으로 지고천의 지류가 흐르며 인근에 '뽕암동'과 회암동 마을이 위치해 있다.

둘째, 정, 천, 우물, 어수, 냉정, 약수, 소, 못, 담, 연, 웅덩이 등으로 구성된 천정 관련 지명은 시가지로 구성된 개성시가 58개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판문군 39개, 장풍군 20개, 개풍군 18개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지역 중에서 천정 관련 지명이 5개 이상 나타나는 곳은 개성시의 남산1동과 판문군의 조강리인데 이중 조선시대 이성계의 집이 있었던 남산1동은 왕이 사용했던 우물(어수)이 지명에 투영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판문군의 조강리는 약 100m 높이의 주변 산지에서 발원한 소지류 하천들이 한강 본류와 만나기 때문에 우물이 타 지역에 비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셋째, 벼랑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시와 개풍군을 제외한 판문군의 조강리와 판문점리, 장풍군의 가곡리, 십탄리, 대덕산리, '림강리', 석둔리, 귀촌리, 장학리 일대에 분포한다. 이들 지역은 모두 하천 연안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장풍군의 대덕산리는 시암천과 '랭정개울', 장풍군 '림강리'는 사미천과 '림강 개울', 장풍군의 석둔리와 귀촌리는 임진강, 장풍군 장학리는 가곡천, 장풍군의 가곡리와 십탄리는 지고천, 판문군의 판문점리는 사천강, 그리고 판문군의 조강리는 조수가 드나드는 감조하천 연안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하천들은 북한 조사보고서(조선 과학백과 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에 의하면 강수량이 많은 여름철에 하천침식력이 강하여 강연안 곳곳에 벼랑 발달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제현의 익재집(제6권 開國律寺 重修記)에도 개성지역의 하천들은 산세 때문에 곡류하지 못하고 직선상으로 흐르기

때문에 수세가 거칠고 순조롭지 못하다고 묘사되어 있다. 따라서 강가 벼랑이 하천침식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는 북한의 조사결과는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붉은 토양과 관련된 지명의 분포지역은 개성시의 은덕동과 보선동, 개풍군의 광답리, 신서리, 신평리, 삼성리, 광수리와 판문군의 판문점리, 진봉리, 상도리, 전재리 그리고 장풍군의 장풍읍, 국화리, '랭정리', 장좌리 일대이다. 북한의 조사보고서(조선 과학백과 사전출판사·한국 평화문제연구소, 2004)에 의하면, 적갈색산림 토양은 밭토양 면적의 89.6퍼센트를 차지하고 주로 개성지역 북부 산지에 반점상으로 덮여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은 개성시(은덕동, 보선동), 개풍군(광답리, 삼성리, 광수리), 판문군(진봉리, 상도리, 전재리), 장풍군(장풍읍, 랭정리, 국화리, 장좌리)에 분포하는 토양지명이 모두 '산' 및 '고개'와 관련되는 것과도 연관된다.

다섯째, 평야(벌)와 관련된 지명은 3,394개의 전체 자연지명 중에서 단지 2개뿐인데 이 수치는 산지의 구성비율이 61.6퍼센트를 차지하는 개성지역의 자연환경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 벌과 관련된 지명 '버드나무벌'과 '광대벌'은 판문군 선적리 일대에 분포하는데 이것은 사천강의 지류인 서암천 연안의 벌을 지칭한다. 이러한 서암천 연안의 벌은 하천의 토사가 쌓여서 형성된 충적지로 하천 상류 쪽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아지는 것이 특징이다.

4. 요약 및 결론

본고는 남북경협사업으로 남·북한 모두에게 장소의 의미가 커진 북한 개성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여 자연지명의 유형별 특성과 자연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자연경관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자연경관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산지 지명에 나타난 개성지역 자연경관은 산지의 구성비율이 높고, 산의 형태가 노년기 산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둥근(圓) 모양과 샷갓(笠) 모양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산과 하천으로 둘러싸인 곳은

복사무가 집적되기 용이하여 안개발생 빈도가 잦고 하천 침식에 의한 돌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둘째, 하천지명을 통해 본 개성지역의 하천은 지류가 많고 모래찼치료를 할 정도로 토사량이 많으며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에 수세가 거칠고 범람의 빈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다. 이뿐만 아니라 개풍군의 신서리, 삼성리, 신평리 그리고 판문군의 '림한리' 일대의 하천은 감조하천으로 조석의 영향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셋째, 동·식물 관련 지명에 나타난 개성의 자연경관특성은 동·식물의 서식환경과 관련 지명 분포지역의 환경이 유사하다는 점이다. 지명에 투영된 36종의 동물 중에서 가장 많이 지명에 반영된 동물은 바위산과 산지의 숲에 서식하는 매, 물가와 낮은 산지에 서식하는 뱀, 삼림 및 덩굴에 서식하는 범, 산지 숲에 서식하는 부엉이, 그리고 습지에 서식하는 자라이다. 반면에 식물은 52종이 지명에 투영되었는데 이중에 지명에 많이 반영된 식물은 산지숲에 서식하는 밤나무, 사질토양으로 구성된 산지사면에 서식하는 소나무, 온난하고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는 곳에 서식하는 배나무, 흙이 깊고 진땅에 서식하는 느티나무, 그리고 냇가에 자생하는 버드나무이다.

이밖에 토양, 벼랑, 바위, 평야 등과 관련된 지명은 기타지명으로 분류하였는데 우선 붉은 토양과 관련된 지명은 개성의 북부 산지지역에 분포하며, 벼랑과 관련된 지명은 벼랑 발달의 원인이 되는 하천 연안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평야를 의미하는 벌 관련 지명은 사천강의 지류인 서암천 연안에 분포하며, 바위 관련 지명의 분포지역은 산과 하천이 있고 바위가 사람의 눈에 쉽게 떨어 수 있도록 인근에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대상지인 개성지역은 최근 남북한 경제협업의 일환으로 개성공단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동시에 개성관광 개발 대상으로 모색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도 지역 자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개성지역이 북한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기초연구는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자연환경을 잘 반영하는 개성지명에 대한 본 연구는 지역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개성지역에 대한 기초자료

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개성공단개발 완료시 지역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려된다.

註

- 1) 『연합뉴스』 2004년 4월 21일.
- 2) 개성공단 내 토지는 북한으로부터 50년간 한시적으로 빌리는 조건이며, 이 조건에 한해서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성공단 1단계 개발지역의 경우 1평당 149,000원에 분양을 하고 있다.
- 3) 2005년 5월 26일 개성공업지구 신발제조공장 견학 시 들은 바에 의하면, 북한 근로자의 한달 평균 임금은 사회보장비 7달러를 포함해서 총 57달러라고 한다.
- 4) 공업지구에 출입·체류·거주하는 남측 및 해외동포, 외국인인 정해진데 따라 개성시의 혁명사적지와 '력사유적물', 명승지, 천연기념물을 관광할 수 있다.
- 5) 기업의 종업원은 원칙적으로 북한의 노력(인력)으로 채용하며, 관리인원과 특수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공업지구 관리기관을 통하여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하고 남측 또는 다른 나라 노력으로 채용할 수 있다.
- 6) 2005년 1월 탈북자 정보제공.
- 7) 2002년 11월 북한의 정무원 령에 의하여 개성시의 자남동, 석죽동, 동흥동, 관훈동, 남문동, 남안동, 동현동, 북안동, 해운동, 부산동, 만월동, 운학일동, 고려동 일부, 은덕동 일부, 내성동 일부, 역전동 일부, '룡산동' 일부, 운학이동 일부, 덕암동 일부, 보선동 일부, 방직동 일부, 송악동 일부, 남산일동 일부, 남산이동 일부, 그리고 판문군의 판문읍 일부, 삼봉리 일부, 전재리 일부를 병합하여 개성공업지구를 신설하였다(조선 과학백과사전출판사, 한국 평화문제연구소 공동 편찬, 2004).
- 8) 물길에 말꼬리처럼 생겼다고 하여 마미천이라고 부름.
- 9) 모래가 많다고 하여 사천이라고 부름.
- 10) 동대문 개울가의 모래찼질이 '삼(인삼, 산삼)' 다음 가는 좋은 치료법이라는 의미에서 '삼다음'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것이 어음변화되어 '삼담'으로 되었다고 함.
- 11) 6, 7, 8월 평균 강수량 : 750-800mm
- 12) 개성지역은 산지의 면적이 전체 면적의 61.6 퍼센트를 차지하여 하천의 하상 경사도도 비교적 급한 편이다.
- 13) 북한은 겨울기온이 낮고 겨울이 길어 연료소비가 많은데 연료수급이 어려워 야산의 나무를 베어 연료난을 해결하고 있다(2004년 4월 북한 동부지역 답사에서 확인한 결과 아파트에서 조차도 나무를 난방연료로 쓰고 있었다). 그 결과

북한 지역 전역의 산이 민등산화되고 여름철 집중호우 때
면 산사태로 인한 토양유실이 매우 크다.

文獻

강길부, 1997, 땅이름 국토사랑, 집문당, 서울.
 국립지리원, 1981, 지도와 지명, 진명사, 서울.
 개풍군지 편찬위원회, 1968, 개풍군지, 정화인쇄문화사.
 김기빈, 1989, 한국지명의 신비, 지식산업사, 서울.
 김기빈, 1990, 가고픈 산하 북녘의 땅 이름, 지식산업사, 서울.
 김기빈, 1993, 한국의 지명유래 4-땅과 이름 그 만남의 사연들, 지식산업사, 서울.
 김기호, 1972, 개성구경, 대한공론사, 서울.
 김기혁, 2005, "일제 강점기 울릉도 고유지명의 변화,"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초록집.
 김양자, 1989, 우리나라의 고개에 관한 지리적 고찰, 이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정미, 2003, 김포시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접근, 한국교원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성욱 · 박현선 · 이영희, 2004, 개성공단개발 대비 체계적 개성관광 육성방안-개성관광을 통한 남북경협차원-, 한국관광공사, 서울.
 남성욱 · 김남조 · 김철원 · 박현선 · 송병준 · 이영희 · 이철수 · 조영기, 유신코퍼레이션(주), 2005, 개성관광종합계획, 한국관광공사, 서울.
 류재영, 1982, 전래지명의 연구, 원광대학교 출판국, 이리.
 북한대사전 편찬위원회, 1979, 북한대사전, 공산권문제연구소, 서울.
 북한연구소, 2003, 북한총람, 광진문화인쇄사, 서울.
 북한연구소, 1990, 북한민주통일운동사-함경북도, 경기 · 강원도미수복지구편, 대진문화사, 서울.
 사회과학원, 2002, 고장이름사전(황해북도, 개성시),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평양.
 서명인, 1998, 청원군 지명에 관한 지리학적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송경록, 2000, 북한 향토사학자가 쓴 개성 이야기, 도서출판 푸른숲, 서울.
 오홍석, 1995, 알기 쉽게 풀어쓴 땅이름 나라얼굴, 고려원 미디어, 서울.

우만형, 1970, 개성, 예술춘추사, 서울.
 이민부 · 전종한, 2005, "추가령 지명의 지형학 및 역사지리적 해석," 문화역사지리, 17(1), 47-65.
 이영희 · 유신코퍼레이션(주), 2005, 개성관광종합계획, 한국관광공사, 서울.
 전룡철 · 김진석, 2002, 개성의 옛자취를 더듬어, 문학예술출판사, 평양.
 정관호 · 윤중한 共編, 1982, 전국행정구역명람, 행정출판부, 서울.
 정치영, 2005, "마을명 분석을 통한 마을입지 및 지역성 연구: 경기도와 함경도의 비교," 문화역사지리, 17(2), 58-73.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 · 한국평화문제연구소, 2004, 조선향토대백과, 한국평화문제연구소, 서울.
 조선중앙사진선전사, 2004, 고려의 옛수도 개성, 민주조선사인쇄공장.
 조선중앙사진선전사, 2005, 고려박물관.
 지현영, 2001, 한국지명의 제문제, 경인문화사, 서울.
 한국관광공사, 2004, 북한 관광자원, 웃고문화사, 서울.
 한재수, 2002, 황도 개령의 비밀, 옛오늘, 서울.
 한창균 엮음, 1996, 북한 고고학 미술사 용어집, 백산자료원, 서울.
 山崎駿二, 1926, 개성군면지, 개성도서관.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兵林館印刷所.
 교신 : 이영희, 136-701,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이메일 : younghee@korea.ac.kr, 핸드폰 : 016-251-0590, 팩스 : 02-3391-8538)
 Correspondence : Younghee Lee, 136-701, Institute of Korean Culture, Korea University, Anam-dong, Seongbuk-gu, Seoul, South Korea(email : younghee@korea.ac.kr, mobile : 82-16-251-0590, fax : 82-2-3391-8538)

최초투고일 05. 12. 14.
최종접수일 06. 6. 26.